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 1. 19(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박경립, 남해경, 이재인, 정명섭, 정은우,
홍성걸, 홍승재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대구 동화사 대응전 주변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공사(재심의)	공개
2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요사채 건립(재심의)	공개
3	안동 윤희동 오층전탑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개
4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입목벌채 및 운재로 개설	공개
5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산신각 건립 및 대응전 석축기단 정비 등	공개
6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전망대 및 안전난간 설치	공개
7	여수 진남관 주변 다가구주택 건립	공개
8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창고 신축	공개

【검토사항】

9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	-------------------------------	----

【보고사항】

10	해남 미황사 대응전 보존방안 조치사항 보고	공개
11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 능가사 대응전 주변 벌채 및 조립사업 - 청도 석빙고 주변 마을회관 신축(2차) -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체육공원 조성 -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농지 성토 -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벌채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 신축 - 찬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태학산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조성(허가사항 변경) - 여수 진남관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주변 분묘설치(허가사항 변경) - 서울 동관왕묘 주변 동묘제례 재현 행사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7-01-001

1.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공사(재심의)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에 팔공산 내 생태통로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12.15)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대웅전
 - 소재지 : 대구 동구 팔공산로201길 41
 - 지정일 : 2008. 04.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14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150m
 - 사업내용 : 생태통로(하부 터널형) 조성
 - 터널상세 : B=13m, L=50m, H=8m~10.5m

- 생태통로 : B=30m, L=43m~67.6m
- 자연석돌붙임 최대높이 : 14m~17.5m
- 방음벽설치 : H=2.0m~3.0m, L=120m
- 수목이식 및 보식 : 교목류 282주, 관목류 7,660주
- 한식지붕 구조물 설치 : 1식
- 데크로드 : B=2.5m, L=100m
- 전망쉼터 조성 : A=50.5m²(목재의자 설치)

라. 현지조사의견(2017.01.10.)

- 신청부지는 동화사를 감싸고 있는 지맥이 끊긴 위치로 지형 회복과 생태환경 조성 차원에서 터널 설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터널 설치에 따른 외부 시설물 및 디자인은 사찰 입구의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소하게 조정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2.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요사채 건립(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보물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요사채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요사채를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12.15)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운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3-1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88m
 - 사업내용 : 고운사 수월암 요사채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13.4㎡(194.4㎡)
 - 구조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10.63m
- 석축쌓기 : 건물 전면 최대높이=1.95m, L=47.5m,
건물 배면 최대높이=1.9m, L=34.6m

라. 현지조사의견(2017.01.10.)

- 신청부지는 사찰의 중심사역에서 산 능선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지의 지형조건과 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를 조정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3.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주변에 공동주택(행복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동주택(행복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운흥동 23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운흥동 271-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30m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신축
 - 부지면적 : 5,200,000m²
 - 건축면적(연면적) : 1,481.15m²(11,208.29m²)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 동·호수 : 3동 200세대(공동주택 2동, 부대복리시설 1동)
 - 층수 및 높이 : 지하 1층, 지상 9층 / 33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4.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입목벌채 및 운재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북 문경시 소재 보물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에 입목을 벌채 및 운재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입목 벌채 및 운재로를 개설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47-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산2, 산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0m
 - 사업내용 : 입목벌채(수종 갱신) 및 산림경영용 운재로 개설
 - 입목벌채
 - 모두베기 : 굴참, 신갈나무 등 6.1ha
 - 조림 : 상수리나무 6.1ha
 - 운재로 개설 : 1,920m²(B=3m, L=640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5.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산신각 건립 및 대응전 석축기단 정비 등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에 산신각 건립, 대응전 석축기단 정비 및 주변정비(광장 조성)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산신각 건립, 대응전 기단정비 및 주변정비(광장 조성)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국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6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7 일원, 1386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내 및 주변
 - 사업내용 : 산신각 건립, 대응전 석축기단 정비, 주변정비(광장 조성)
 - 산신각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7.01㎡(17.01㎡)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7.8m
- 기타 : 기존 산신각(10.04m²) 철거, 진입계단 정비
 - 대응전 석축기단 정비
- 높이 : 1단(1.12m), 2단(0.72m)
- 길이 : 16.6m
 - ※ 기존 석축기단 해체 후 신재 보충하여 위치 및 선형 변경없이 재설치
- 주변정비
- 광장조성 : 734m²(잡석다짐 20cm, 황토콘크리트포장 15c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6.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전망대 및 안전난간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진도군 소재 보물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에 전망대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전망대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진도군수
- (2) 대상문화재 :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 소재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356-2
 - 지정일 : 1971.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산51-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80m
 - 사업내용 : 전망대 및 안전난간 설치
 - 바닥 목재데크 설치(180.5㎡)
 - 안전난간 설치
 - 천연목재난간 7경간(10.5m), 알루미늄난간 41경간(82m)
 - 등 의자 5개소

라. 참고사항

- 전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0호 “금골산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관계전문가 3인 검토 결과
 - ○○○(영향있음), ○○○·○○○(영향없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조물의 축소 등 자연지형에 어울리게 조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7. 여수 진남관 주변 다가구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여수 진남관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군자동 472
 - 지정일 : 2001. 04. 1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군자동 361-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5m
 -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건립
 - 대지면적 : 318㎡
 - 건축면적(연면적) : 189.72㎡(565.20㎡)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4층 / 17.5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8.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주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창고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18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85-1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70m
 - 사업내용 : 창고 신축 2동
 - 건축면적 : 200㎡(2동×100㎡)
 - 규모 : 지상 1층(가로25m×세로4m×높이4.7m×2동)
 - 구조/ 마감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7-01-009

9.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 가평군 소재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대한 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가평군 소재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3호 「현등사삼층석탑」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등사길 34(하판리 산163번지)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加平 懸燈寺 三層石塔)
 - 소유자(관리자) : 현등사(현등사)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등사길 34(하판리 산163번지)
 - 조성연대 : 조선초기(1470년 경)
 - 지정면적 : 3.5㎡(보호구역 35,273㎡)
 - 양 식 : 삼층석탑

라. 현지조사의견(2016.05.27, 2016.06.03)

- 前)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마. 의결사항

- 부결
 - 고증자료 등 보완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6명, 원안가결 1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06.03	대상문화재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석조문화재 보존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01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문화재지정 현지조사 보고

1. 현등사의 연혁

懸燈寺는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163번지 운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고찰로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의 말사이다. 현등사는 신라 말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선각국사 도선이 898년(효공왕 2) 주석하면서 중창한 사찰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보조국사 지눌이 1210년(희종 6) 현등사를 재창하였고, 조선시대에는 己和大師 涵虛堂이 1411년(태종 11)에 크게 중창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2014. 정영호)

현등사의 연혁을 알 수 있는 고문헌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가람고>와 <범우고> 등이며 이들 이외에도 <여지도서>와 <경지지> 등의 문헌에 현등사가 가평에 소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현등사는 세종대왕의 일곱째 아들인 평원대군과 그의 부인 흥씨, 예종의 두 번째 아들인 제안대군과 그의 두 부인의 위패가 모셔진 왕실의 원찰이었다. 또한 현등사는 수도였던 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조선 초기 信眉 등 유력한 승려들이 머물면서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런 까닭에 왕실의 후원으로 여러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때문에 현재에도 나름대로의 사격을 유지하며 많은 불교유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2. 현등사 소재 문화재

현등사에는 보물 제1793호인 가평 현등사 동종을 비롯하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3호 현등사 삼층석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3호인 현등사 목조아미타좌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4호 현등사 청동지장보살좌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5호인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등을 비롯하여 총 13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현재 현등사 경내 서편에는 함허당의 사리를 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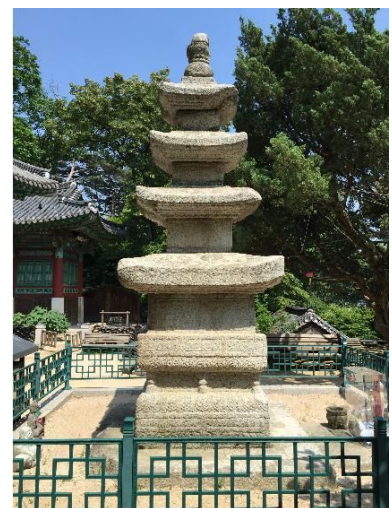


그림 1. 현등사 삼층석탑 전경

리하여 모신 승탑과 석등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아무튼 총림도 아닌 그다지 크지 않은 말사에 이처럼 수많은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으니 이는 나름의 법통을 유지하고 도량을 이룬 까닭이며 큰 스님이 주석하였고 또한 왕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로 들어와 불교계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왕실과 연계되어, 다양한 여러 불교미술품들이 제작되었고 현재 까지도 잘 보관되어 자리하고 있으니 이를 높게 평가할 만하다.

특히 높은 공예 수준을 보여주는 사리장엄구를 제작하여 석탑에 봉안했음은 귀한 가치를 지닌다 할 것이다. 이 사리장엄구를 통하여 현등사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 명문도 새겨 놓아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3. 석탑건립의 배경

불가에서 불탑을 건립하여 공덕을 쌓는 일은 큰 복덕 중의 하나였다. 그런 까닭에 모든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몸으로서 진신사리를 모시고자 하였고 이러한 일이 여의치 않으면 불사리를 대신하는 다른 영물을 봉안하여 조탑공덕을 쌓았던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는 불교가 위축되었고 불사를 창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니 불탑을 건립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국가적 혹은 왕가에서 염원하여 건립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특히 비보적 건립도 있었는데 이 현등사삼층석탑은 강한 경내의 기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地鎮塔으로 건립했다고 한다. 강한 기운은 다스리며 약한 기운은 이를 보하는 것인데 이는 억누르는 역할을 한 것이다.

현재 이 삼층석탑 이외에도 삼층석탑이 세워져 있는 아래, 즉 사역의 능선 끝 지점 아래쪽에도 지진탑으로 전해지고 있는 다른 석탑이 있다. 이 탑은 파손 결실된 부재들을 모아 조립한 것 같기는 하지만 고려시대 건립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현등사는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창건되었으며 풍수 비보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사찰임을 알 수 있다.(엄기표, 2014)



그림 2. 현등사의 또 다른 지진탑

뿐만 아니라 이 사찰은 왕도인 한양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信眉 등 유력한 승려들이 머물면서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왕실의 후원을 받았고 왕실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불탑건립의 한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4. 석탑 건립시기

흔히 이탑은 조선시대 초기의 작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문화재 관련 자료에는 고려 말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조선초기에 제작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탑내에서 발견된 원통형 사리함의 표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1470년 3월 원당인 현등사의 석탑을 개조하여 사리 5과를 봉안했는데 이천억과 구수영이라는 분이 대시주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명문으로 보아 현등사삼층석탑은 늦어도 1470년 3월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탑의 양식으로 보아서도 그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함허당 스님에 의하여 1411년부터 크게 불사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서 1411-1470년 사이에 건립된 것이라 짐작된다.

5. 석탑의 건립위치

현등사의 많은 문화재 중에서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나 가람배치의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 삼층석탑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광전과 극락전, 불이문으로 이루는 가람의 중심축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오히려 향 좌측에 다소 치우쳐 자리 한다. 물론 이 위치가 과거 가람배치상 중심축이었던지도 모르나 이는 분명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가 원래의 위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삼층석탑은 사역의 중심영역이나 중심축선에서 전방으로 튀어나온 능선의 거의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특이하다. 특히 주변에 금당이나 다른 시설물이 없어 다소 중심공간에서 떨어진 위치에 삼층석탑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람배치상에 있어 불탑의 위치에 대한 특이점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삼층석탑이 원래의 위치가 아니거나, 사찰의 중심공간이 원래의 위치에서 우측으로 옮겨졌거나, 가람의 중심축선상의 중심 법당 앞에 순수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사리를 봉안한 불탑으로서의 성격이 아닐 수도 있어 오히려 비보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요

구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현재의 위치에 裨補的 건탑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6. 삼층석탑의 형식

현등사삼층석탑은 한국석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의 기단부를 하고 있지만 크게는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는 틀을 지키고 있다. 이 삼층석탑은 현재 기단부와 탑신부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상륜부는 조선시대 석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노반과 복발, 그 위에 보주를 얹어 전형적인 석탑의 호화로운 상륜을 간략화한 모습을 하고 있다.

<기단부 형식>



그림 3. 옥개석형식으로 된 상대갑석과 탁자형 하층기단

석탑의 맨 아래 부재인 지대석은 넓은 판석형 석재로 마련되었는데 그 정상부 중앙에 홈을 파 기단부 부재들이 견고하게 끼어들어가 고정되도록 했다. 그 위에 탁자모양의 하층기단과 옥개석 모양의 갑석을 얹은 상층기단으로 구성되었고 그 기단부 위에 다시 3개층의 탑신이 올라간다. 흔히 전형적인 신라식 석탑에서 2중기단이라면 지대석, 저석, 중석, 우주와 탕주, 면석, 갑석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탑의 경우는 기단부가 전혀 다른 이형적인 모습이다.

기단부 맨 아래는 판석으로 지대석을 두었고, 그 위에 마치 탁자처럼 혹은 불단처럼 생긴 2중기단을 두었다. 이 경우 상층기단의 갑석이 석탑의 옥개석처럼 되어서 혹자는 이 탑을 4층석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이 이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탑이라 할 것이다. 즉 이 탑에서 2층으로 된 이형적인 기단부의 하층기단은 표면에 연화문과 안상을 새겨 우리나라 석탑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하층기단은 단일석으로 상하층을 이루었는데 연화문 위와 아래에 난간의 궁창과 같은 장방형의 문양을 만들었다. 하단의 궁창 아래에는 불탑의 기단부에서 자주 나타나는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또한 소위 석탑기단의 중석부분에는 3기의 기둥으로 2칸을 나누었다. 이처럼 흔히 우주와 탕주라고 불리는 석탑의 기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매듭이

있는 둥근기둥은 한국석탑 어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다.

상층기단에서 상대갑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아래에 있는 면석은 좌우에 각형 기둥형식을 조각하여 각각 사각형으로 2구획하였으며, 위 아래에도 인방채를 조각하여 건물 입면부처럼 느껴지도록 했다. 또한 특이하게 옥개석처럼 된 상대갑석은 1층 옥개석 보다 더 크고 둔중하며 그 하부에는 옥개받침을 얇게 각출하였고, 상부는 옥개석의 낙수면처럼 완만히 경사지게 치석했다. 나아가 합각부에서 반전을 주어 마치 처마부가 살짝 들어 올린 반전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 옥개석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석탑을 3층이 아닌 4층이나 5층으로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석탑의 구조와 결구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부재는 옥개석이 아닌 상대갑석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등사 석탑은 분명히 3층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갑석을 옥개석처럼 치석한 점을 흔치 않은 특이한 수법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탑의 기단부는 정형에서 일탈된 이형적인 모습을 주고 있으며 탑신부의 규모에 비하여 높고 넓게 마련되어 전체적인 안정감은 주지만 균제미가 부족하며 비례가 어울리지 않는다.

<탑신부 형식>

탑신부의 탑신석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큰 체감 없이 조성하였으며, 각층 모두 탑신석에는 장방형의 벽면을 꾸몄는데 좌우에 우주를 모각한 듯하고, 상하부에는 인방을 낮게 모각하여 다른 탑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옥개석은 하부에 층급받침을 마련하였는데 각출 높이가 낮고 기법이 약화되어 형식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이 석탑의 건립 시기가 다소 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낙수면은 완만하게 굴곡지게 하여 유려한 경사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귀 마루부에서는 완만한 곡을 이루나 전각부의 처마형식에서는 심한 반전을 주었는데 경쾌하지만 정형적인 형식에서 일탈한 후기적 모습을 보인다.

상륜부는 3층 옥개석 상부에 2단의 낮은 괴임을 마련하여 올렸다. 현재 상륜부는 연화문이 장식된 원형의 복발석과 연주문 받침대 위에 원형을 보주석으로만 구성되어 일부가 결실되었거나 간략화된 기



그림 4. 간략화한 옥개받침

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간략화된 상륜부는 조선시대의 석등 장명등, 부도 등에 많이 적용된 기법이었다.(엄기표, 2014)

7. 조사자의 의견

- 현등사 삼층석탑의 전체적인 모습은 한국석탑의 전형양식을 따르나 기단부는 오히려 여러 가지 모습을 조합하고 양식상 비례감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에서 간략화의 경향을 보이는 후기적 양상이 나타나지만 반면 기단부는 세부적으로는 섬세하고 장식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 석탑의 위치와 건립동기는 아무래도 사찰의 중심영역에서 벗어나고 가람의 단부에 자리하여 불사리 봉안의 용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비보적 기능하고 있는 석탑이 아닌가 추정한다.
- 이 탑의 건립시기는 사리함의 명문으로 보아 늦어도 1470년 3월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탑의 양식으로 보아서도 그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함허당에 의하여 1411년부터 크게 불사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서 1411-1470년 사이에 건립된 것이라 짐작된다.
- 조선시대에 불교가 쇠퇴함과 함께 불교적 조형도 위축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조선 초기에 고려적인 모습이 남아 있어 불교미술의 수법을 간직한 작품이 다소 출현하였으니 이 탑에서도 고려탑의 특징을 이어간 조선초기탑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전형양식에서 이탈, 균제미의 결여, 지역성 표현, 지방인들의 참여, 다층석탑건립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석탑 구성에 있어 기교의 감퇴와 불교적 염원의 결핍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 현존하는 조선 초기 사각형 중층의 일반형 석탑 가운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낙산사칠층석탑(보물 499) · 신록사다층석탑(보물 225) · 벽송사삼층석탑(보물 474) 등 몇 기에 불과하다.
또한 특수형 석탑은 더욱 드물어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원각사지십층석탑

(국보 2)은 형태와 평면이 특수하고 수법이 세련되었으며 의장성이 아름다워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가장 우수한 석탑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초기석탑은 수효도 적고 그 작품성도 신라나 고려 시대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시대석탑 중에서 아주 적은 수효만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까닭을 이해 할 수 있겠다.

- 따라서 이상과 같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석탑의 조형성, 비례감, 완성도, 건립시기, 건립위치, 건립용도, 기지정된 조선시대 석탑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가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다만 사리장엄구에 대하여 차후에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05.27	대상문화재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조사자	성명	○ ○ ○	전공 분야	불교미술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01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1. 내력

- 명칭 :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3호(1974년)
- 소유자 : 현등사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현등사
- 조성연대 : 조선시대 15세기
- 수령 : 1구
- 규격 : 3.7m
- 조사일 : 2016. 5. 27

2. 현상

현등사 삼층석탑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석탑이다. 현등사는 涵虛堂 己和大師 (1376-1433)에 의해 1411년 중창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태종의 三大君의 원당으로 전한다. 실제로 현등사에는 涵虛堂 己和大師 (1376-1433)의 1433년 득통탑이 남아 있으며 현등사 삼층석탑 또한 조선왕실과 관련된 명문이 남아 있다. 현등사에 대한 자료는 1722년에 쓰여진 <운악산현등사사적> 등이 남아 있다.

현등사 삼층석탑은 현재 보광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석탑은 2단의 기단부와 3층의 탑신석,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륜부는 복발과 보주로 구성되어 간략화된 점이 특징이다. 기단부는 연화문과 안상, 額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기단부의 위에는 지붕을 반전한 옥개석형의 갑석을 놓았는데, 그 상면에 복련대를 조각하고 하면에는 3단의 받침을 마련한 다음 그 위에 탑신석을 올려 놓은 점이 매우 독특하다. 이로 인해 옥개석일 가능성과 오층석탑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복련대가 있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기단부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탑신석은 탑신석과 옥개석을 각 1석으로 제작하였으며 각 면마다 額을 조각하고 3단 또는 4단의 받침을 조각하였다.

석탑은 전체적으로 단순한 형태를 보이는데 특히 상륜부의 경우 복발과 연주문, 보륜, 보주를 하나의 석재로 제작하여 간략화하여 고려 후기 부도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사찰에서는 별도로 석탑에서 나온 사리구를 소장하고 있다. 이 사리장엄구는

1979년 도굴되었다가 다시 찾은 것으로 원통형의 사리함과 내부에 있는 수정제사리구로 이루어져 있다. 사리함의 표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成化六年庚寅三月日 願堂...”등으로 1470년 3월 원당인 현등사의 석탑을 개조하여 사리5과를 봉안하였는데 帶方府 夫人 宋氏의 딸 吉安縣主 李億千과 折衝將軍 中樞府僉知事 具壽永이 대시주를 하였다고 한다. 宋氏가 세종의 8남 영웅대군의 부인 송씨로 이해되는 점에서 영웅대군 가족에 의한 왕실발원인임을 알 수 있다. 즉 1470년 이전에 이미 석탑이 있었고 현재의 석탑은 다시 개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조라는 의미에 대한 해석은 확실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현재의 석탑이 1470년에 다시 만들었다는 의미와 이전의 석탑을 부분적으로 다시 제작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석탑의 현상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

3. 특징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은 기단부의 구성이 단순하고 괴임단과 받침단의 처리가 형식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옥개석은 단순한 조형성을 보이는 석탑이다. 갑석을 옥개석 형태로 하는 것은 안동 옥동 삼층석탑에서 볼 수 있으며 갑석 상면의 복련대 장식은 사자빈신사지 석탑과 같은 고려시대 석탑에 보이는 특징이다. 그러나 가장 유사한 형식의 석탑은 15세기후반으로 추정되는 강릉 용연사 삼층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조선초기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에서 별도로 소장하고 있는 사리구에는 이전의 석탑을 1470년에 다시 개조한 것이라는 명문이 쓰여 있는데 개조라는 의미는 1470년 이전의 석탑을 조선시대에 다시 고쳤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그 이전인 석탑의 원래 건립시기가 고려시대인지 조선초기 사찰의 중창시기를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전의 석재와 1470년에 다시 만든 부재들을 치석이나 결구수법의 차이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다만 조선시대 이전에 건립된 석탑을 조선시대에 다시 중수한 사례로는 승안사지삼층석탑, 금산사 오층석탑, 보림사 삼층석탑, 선암사 삼층석탑 등이 남아 있다.

4. 지정 가치 및 기준

현등사 삼층석탑은 조선초기 15세기에 다시 건립된 석탑으로 고려적인 요소와 조선 전기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1470년 영웅대군 부인과 그 가족의 시주로 다시 건립된 석탑인 것은 입증되지만 재건의 의미를 남아 있는 석탑의 현상적 특징만으로 찾기

는 어려운 편이다.

또한 보광전도 나중에 다시 건립되었고 중심축선과도 맞지 않으며 석탑 하부에 대한 조사도 없어 원래의 위치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자료를 보완하여 정확한 시기와 중요성을 찾아야 할 것으로 현재로서 국가 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05.27	대상문화재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조사자	성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문화재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지정가치 미흡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01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가평 현등사는 운악산 중턱에 좌우의 산 능선이 둘러싼 작은 골에 터를 닦아 사역을 조성하고 남향하여 전각들이 자리잡고 있다. 주불전인 극락전이 사역의 중심 위쪽에 있고, 그 남쪽에 보광전이 있으며, 그 아래에 108계단을 내려오면 불이문이 직선축에 맞춰 자리잡고 있다. 지장전, 삼성각, 영산전, 약사전 등의 부불전과 요사채는 부지가 협소하여 중심축에서 빗겨나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삼층석탑은 보광전의 남서쪽 사찰부지의 끝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아래에 지진탑이라 불리는 석탑이 있다. 또한, 사역의 남서쪽 옛길 주변에 조선초기의 팔각 원당형 부도인 함허당 득통탑과 석등이 남아있다.

□ 연혁·유래 및 특징

- 연 혁

현등사의 신라 선각국사 도선이 주석하면서 중창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고려 시대에는 보조국사 지눌이 1210년(희종 6) 현등사를 재창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운악산현등사사적>에 의하면 함허당 기화대사(1376-1433)이 1411년(태종 11)에 크게 중창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등사는 세종대왕의 일곱째 아들인 평원대군과 그의 부인 홍씨, 예종의 두 번째 아들인 제안대군과 그의 두 부인의 위패가 모셔진 왕실의 원찰이었다. 또한 현등사는 수도였던 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조선 초기 신미 등 유력한 승려들이 머물면서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런 까닭에 왕실의 후원으로 여러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들은 조선 순조 30년(1830) 때 암구대사에 의해 새로 지어진 것들이다.

삼층석탑의 건립시기는 이 탑내에서 발견된 원통형 사리함의 표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成化六年庚寅三月日願堂雲岳山懸燈寺塔改造捨利五枚安邀大施主帶方府夫人宋氏女子吉安縣主李億千折衝將軍中樞府僉知事具壽永’

이 명문에 의하면 성화 6년인 1470년 3월 원당인 현등사의 석탑을 개조하여 사리 5과를 봉안했는데 이천억과 구수영이 대시주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문으로 보아 현등사삼층석탑은 늦어도 1470년 3월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문에서도 보이듯이 ‘개조(改造)’했다는 것은 1470년 3월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이 시기에 석탑의 당초 형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

- 특 징

석탑의 지대석은 방형의 통재를 놓고 기단석이 앉혀질 자리에 홈을 파서 기단부가 밀리지 않도록 했다. 기단부는 3단으로 이형적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층은 불상의 연화대좌와 같은 형식이고, 상층은 옥개석 모양의 갑석을 얹은 기단으로 구성되었다. 하층 기단부는 상대 양련석과 하대 복련석에 연화문이 촘촘히 장식되어 있는데, 연판(蓮瓣)에는 고려중기부터 유행했던 꽃머리 장식이 새겨져 있고, 중대석에는 각 모서리에 고복형 기둥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었으며, 상·중·하대 각 부재에는 장방형의 액(額)을 새겨 비례를 조정하고 있다. 상층기단 면석은 각면을 2등분하여 장방형의 액(額)을 새겨 기둥과 벽을 표현하였고, 그 위에 옥개석 형태의 갑석을 올려 마무리했다. 이 상대 갑석의 하부에는 옥개받침을 얇게 조각하고, 상부는 옥개석의 낙수면처럼 경사지게 하면서 연화문을 조각하였다.

기단부 위에는 3개층의 탑신이 올라간다. 탑신석은 각층 모두 탕주나 기둥 형태가 아닌 장방형의 액(額)을 벽면처럼 표현하여 일반적인 탑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옥개석은 하부에는 1·2층 4단, 3층 3단의 굽이 낮은 층급받침을 마련하였고,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처마는 귀마루에서 심한 반전을 주어 후기적 모습을 보인다. 상륜부는 노반이 없고 옥개석 상부에 2단의 낮은 받침을 마련하여 복발을 올리고, 그 위에 연주문과 양련이 조각된 원형의 보주석을 올려 마감하였다.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이 탑의 건립시기는 사리함의 표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성화 6년인 1470년 3월 원당인 현등사의 석탑을 개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문에서도 보이

듯이 ‘개조(改造)’했다는 것은 1470년 3월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이 시기에 석탑의 당초 형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 이러한 추정은 특히 기단부에서 나타나는데, 기단부가 사리탑에서 보이듯이 상·중·하대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층갑석이 옥개석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비례가 둔중하다는 점에서 기단으로 보기에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기단부는 둔중한데 비해 상층 탑신은 외소한 면을 보이고 있어 기단과 탑신의 비례가 유사 시기의 다른 석탑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면, 1470년 이전에 조성된 석탑을 이 시기에 다른 석조물의 부재 혹은 신부재를 추가하여 새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변화는 이형적 형태와 비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등사삼층석탑은 재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최초 조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고, 개조하면서 동시기 석탑의 일반적인 형태와 비례에서 벗어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7-01-010

10. 해남 미황사 대응전 보존방안 조치사항 보고

가. 보고사항

전남 해남군 소재 보물 「해남 미황사 대응전」 전면 우측 중량 파손과 관련하여 보존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해남 미황사 대응전」 전면 우측 중량 파손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 주요내용

(1) 훼손현황

- 미황사 대응전 전면 우측 중량 파손
 - '16.12.13. 지자체 수시점검 시 확인
 - ※ 중량 하부와 대량 상부 사이에 버팀목을 긴급 설치함

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의견(2017.01.05)

- 미황사 대응전 중량에 부식이 발생하면서 하중에 의한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됨
- 중량 주변 반자와 공포 등에서 일부 이완이 보이고 있으므로 해체보수 설계를 진행하되,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체범위를 결정함이 좋겠음
- 해체보수 전에 중량의 파손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계측 실시

마. 향후 계획

- 대량 하부에 버팀대 추가 설치, 지붕해체보수 설계(긴급보수비 지원)
 - 중량이 파손되어 하중이 대량에 직접 전달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 * 지반에 버팀목 설치를 위해 대응전 마루판 일부 제거 (사찰 동의 필요)
- 해체보수공사 진행 전까지 정기적 계측 실시(국립문화재연구소)
- '18년 해체보수공사 실시(문화재보수정비예산 지원)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총해, 단청 등 종합적인 조사 선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

1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전남 고흥군 소재 보물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벌채 및 조림사업 등 허가신청 1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1건	허가 7건 변경허가 3건 불허 1건	
고흥 능가사 대웅전	전남 고흥 (○○○)	<input type="checkbox"/> 벌채 및 조림사업 ○ 위치 :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99-3 외 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83m 이격) ○ 사업면적 : 10,000㎡(간벌70%) - 잡관목 제거, 화목류 존치 ○ 식재수종 - 두릅나무	허 가	'17.01.17
청도 석빙고	경북 청도 (교촌리새마을회 ○○○)	<input type="checkbox"/> 마을회관 신축(2차) ○ 위치 : 청도군 화양읍 교촌리 34 * 제1구역(보호구역과 연결)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57.6㎡(57.6㎡) - 건축구조 : 일반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33m	허 가	'17.01.1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경북 성주 (성주군수)	<input type="checkbox"/> 체육공원 조성 ○ 위치 :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3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2m 이격) ○ 사업내용 : 체육공원 조성123m ² - 인조화강석 포장 등 196.1m ² - 경계웬스 설치 H=1.1m L=40m - 운동기구 설치 4ea - 등 의자 설치 3개소 - 정원등 설치 6개소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33m - 관목류 식재 : 연산홍 등 599주	허가	'17.01.17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 상	경북 영주 (주식회사 덕우 대표 ○○○, ○○○)	<input type="checkbox"/> 농지 성토 ○ 위치 :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134-2 외 12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10m 이격) ○ 사업내용 : 농지 성토 14,281m ² - 성토높이 0.76m ~ 1.5m - 진입로 조성 : 쇄석포장 1,958m ² (B=10m, L=195.8m, T=0.15m)	허가	'17.01.17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경북 청도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2차) ○ 위치 :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1333-7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3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99.93m ² (99.93m ²)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기와지붕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52m	허가	'17.01.17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경북 김천 (○○○)	<input type="checkbox"/> 벌채 ○ 위치 : 김천시 남면 오봉리 산209-4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50m 이격) ○ 사업내용 : 수종갱신 - 벌채면적 : 0.6ha - 벌채재적 : 161m ³ - 작업로 개설 : 250m - 조림면적 : 0.6ha(호두나무 식재 120본)	허가	'17.01.1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울산 울주 (○○○)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 신축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35-5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309m 이격) ○ 사업내용 : 숙박시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750㎡(1,575㎡) -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 최고높이 : 18m -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17.01.17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충남 천안 (천안시장)	<input type="checkbox"/> 태학산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조성 (허가사항 변경)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산28-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00m 이격) ○ 변경 사업내용 - 대피소 위치이동 - 식생매트 위치 이동 - 출렁다리 위치이동	변경허가	'17.01.17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 위치 : 여수시 동산동 82-7 외 2 *제1구역,제6구역(보호구역에서 446m 이격) ○ 대지면적 : 510㎡→765㎡ (도로 조성 별도) ※ 도로 조성 : 259㎡ → 396㎡ ○ 건축면적(연면적) : 77.52㎡(99.03㎡) → 156.84㎡(216.39㎡)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7.49m → 지상2층 / 12.1m ○ 그 외 변경사항 · 1층 일부 용도변경(단독주택→수리점) · 대지·건물형태 및 입면 변경	변경허가	'17.01.1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충북 옥천 (선산곶씨친 재공파중중)	<input type="checkbox"/> 분묘 설치(허가사항 변경) ○ 위치 :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33-10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20m 이격) ○ 변경사항 - 사업면적 : 650㎡(형태변경) - 절성토 범면 전석쌓기 · H=0.5~2.5m, L=25m · H=0.5~1m, L=30m	변경허가	'17.01.17
서울 동관왕묘	서울 종로 (○○○)	<input type="checkbox"/> 동묘제례 재현 행사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27길 84 *문화재 지정구역 내 ○ 행사날짜 - 2017.03.05.(일) 10시~12시 ○ 행사내용 - 동묘제례 재현 ○ 설치물 - 제단 및 마이크 설치 ※ 관리인원, 보안요원 배치	불허	'17.01.17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